

광주 남구 3급 인사 강행...광주시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남구, 자체승진 이현 전 국장 부구청장 임명 "광주시와 협의 이어갔지만 점점 찾지못해"

광주 남구가 광주시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체 승진 인사를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인사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고 있다.

남구는 지난 달 18일 4급에서 3급으로 자체 승진한 이현 전 자치행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 중 광주시의 반대 속 3급 자체 승진 인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사실상 남구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 5개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상호 인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인사 적체 해소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주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소속 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간 해당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광주 시로 복귀한다.

광주시 소속이었던 직전 남구 부구청장이 퇴직을 앞두고 관례대로 시청으로 복귀했다면, 광주시 소속 퇴직예정자가 된다. 이럴 경우 광주시에 3급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직급 간 인사 조정 등 원활한 인사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전 남구 부구청장이 남구에서 퇴직하기로 결정, 광주시 인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남구는 직전 부구청장이 남구 소속으로 공로연수(퇴직 준비)에 들어간만큼 3급 부구청장직을 일시 공석으로 두고 광주시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자체 승진 인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

남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달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례적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에 따라 남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

단하겠다.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도 이날 "나머지 4개 구청과의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남구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시와 여러 차례 인사 교류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부구청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둘 순 없어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와 인사 교류 등 소통의 문은 열려두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남 정원 수목원 치유와 휴식 명소 도약 캠프·음악회 등 특색있는 볼거리 연계해 지난해 474만 명 방문



전남도의 정원과 수목원이 수려한 경관과 함께 캠핑, 음악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치유와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 전국적인 휴양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남 지역 정원과 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은 474만여 명으로 2021년(346만여 명)보다 128만

명(37%)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남지역 모든 정원, 수목원 등의 방문객 수가 늘었다. 이는 누구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조용한 휴식이 가능해 크게 각광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순천 민국가정원 50만 명, 지방정원인 담양 죽녹

원 12만 명, 민간정원인 나주 3917마중 35만 명,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7만 명 등이다.

전남도는 도내 우수한 산림자원 중 가치 있는 곳을 조성·등록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총 28개의 정원, 수목원을 등록했다.

특히 민간정원은 정원별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최근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연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캠핑, 음악회 등 문화행사도 개최해 전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수목원은 천혜의 난대림을 자랑하는 완도수목원과 지리산 자락에 수줍게 핀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구례수목원, 가을이면 노란 은행이 수놓은 길이 유명한 나주 은행나무수목원이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려 정원 방문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정원과 수목원을 방문해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강화해 전남 산림관광을 브랜드화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윤현숙 IWPG 대표 "필리핀 '국가평화의 날' 지정...평화 확산 정착에 중요 역할"

'제1회 필리핀 국가평화회의' 발제자 참가

윤현숙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최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1회 필리핀 국가평화회의'에 참가해 지난 '1월 24일을 '국가평화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필리핀 평화 확산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제했다.

올해 필리핀에서 처음 열린 '제1회 필리핀 국가평화회의'는 평화위헌자발봉사자들(VIP, 대표 로널드 아다맛) 주최로, 1부 행사는 각계각층의 1500여명 회원들과 국회의원, 대학 총장, 교육자, 청년 및 여성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이후 분과별 세션이 진행되어 여성 지도자들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동반자로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란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마리아 팀볼 카팔롱 다바오 델 노르텔 시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윤현숙 대표, 미르나 야오 필리핀여성지방평의회연합 대표, 세실리아 가스콘 블라칸 주립대학교 총장 순으로 이어졌다.

'국가평화의 날' 지정은, 지난 2014년 1월 24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가 민다나오에서 40여년간 1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필리핀 정부와 모로인 간의

분쟁을 '민간 평화 협정'으로 종식한 것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평화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여성 세션에서 윤현숙 대표는 "평화는 다른 누군가가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있는 여성 리더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평화의 날' 지정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법제화 지지를 위해 여성 리더들이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미르나 야오 필리핀여성지방평의회연합 대표는 "필리핀 첫 여성 대통령이 여성을 위해 법 제정을 했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자유를 얻어야 한다"면서 "여성들은 가정에서도 직업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사회인으로 활동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실리아 가스콘 블라칸 주립대학교 총장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은 우리 미래인 자녀들이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가 사회 그리고 국가로 확산이 된다"면서 "평화와 경제는 연관이 있고, 필리핀은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평화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GDP로 봤을 때 평화 유지를 했던 국가들이 GDP도 유지했다. 즉 경제와 평화는 연결되어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갯벌 보전·이용 글로벌 표준모델 개발한다

전남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갯벌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세계인이 찾는 생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표준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간보고회는 전남도, 시·군, 도 갯벌관리위원회, 민간단체, 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갯벌

의 체계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앞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 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 수립과 새로운 미래가치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6월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갯벌과 주변지역의 현황·여건 분석', '갯벌의 용도별 관리구역 설정·맞춤형 관리 수단 마련',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가치 확산 방안', '갯벌 인식 증진·국내외의 협력에 대한 실행계획' 등이다.

갯벌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갯벌 보호와 지역민 상생 전략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PES) 도입을 통해 그동안 갯벌을 보전해온 지역민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사업도 발굴한다.

전남도는 전남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지난해 9월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지했다.

김재환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99.45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3. 02
3. 사업운영기간 : 2023. 02 ~ 2048. 01(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2. 01. ~ 2023. 02. 13. 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옥곡1호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45	(1,387㎡/7,684㎡)
2 옥곡2호 태양광발전소	곽은선	99.45	(912㎡/7,684㎡)
3 옥곡3호 태양광발전소	이승태	99.45	(1,117㎡/7,684㎡)
4 옥곡4호 태양광발전소	박종식	99.45	(987㎡/7,684㎡)
5 옥곡5호 태양광발전소	고병석	99.45	(997㎡/7,684㎡)
6 옥곡6호 태양광발전소	송경순	99.45	(862㎡/7,684㎡)
7 옥곡7호 태양광발전소	김기수	99.45	(1,422㎡/7,684㎡)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406-16, -18, 407, 408-3, -4, 409, -2, 414-6, -18

한국에너지공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 시간에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급 상황으로 기업과 근무자 모두 행복해합니다.

국민이여! 남에게서 웃음은 없습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